

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종단 영향

설지후 · 엄하람

pp. 59-61 · DOI 10.99999/n.2019.17.3.059

국문초록

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8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조사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이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. 1차 조사의 학업 스트레스는 2차 조사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($\beta = .27$). 1차 우울을 통제해도 예측력은 유지되었다.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.

주제어 학업 스트레스, 우울, 종단연구, 중학생

I. 서론

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대부분 한 시점의 조사로 보고되어 왔다. 이 연구는 같은 학생을 두 번 조사하여 시간 순서를 확인한다.

II. 연구 방법

1. 연구 대상

1차 조사(2018년 3월)에는 중학교 2학년 210명이 응답하였다. 2차 조사(같은 해 11월)까지 참여한 학생은 187명이었고, 23명(전학 5명, 장기 결석 6명, 응답 거부 12명)은 2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. 두 차례 모두 응답한 18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.

2. 측정 도구

학업 스트레스는 서하진과 방도윤(2012)의 학업 스트레스 척도(Academic Stress Scale, ASS; 20문항, 5점 척도, $\alpha = .90$)로 측정하였다. 우울은 두 차례 모두 같은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.

3. 분석 방법

1차 우울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III. 연구 결과

1차 학업 스트레스는 1차 우울을 통제한 뒤에도 2차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($\beta = .27$, $p = .002$). 두 차례 평균은 아래 표와 같다.

표 6. 조사 시기별 평균 (n = 187, 5점 만점)

변수	1차(3월)	2차(11월)
학업 스트레스	3.22	3.41
우울	2.08	2.31

IV. 논의

2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23명의 특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. 탈락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달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